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 지원 최선

무주군, 피해 주민 회복 적극 협조·소송 진행 시 행정력 최대 지원

무주군이 용담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등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천을수 위원장 등 주민들은 이날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제시한 배상액과 관련하여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 터무니없는 배상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천을수 위원장은 "2년이 넘도록 정부의 배상만 기다려 왔다"며 "피해 농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배상 산출이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 일부 보상이라는 청천벽력 소식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투쟁에 나서 반드시 100% 보상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는 법적투쟁과 함께 앞으로도 지난달 12일 군청 앞 결의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정부의 100% 보상'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북 무주군 용담댐 방류'에 의한 재산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 결정 결과 신청금액 83억7,100만 원 가운데 41억7,800만 원을 산정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64%인 26억 7,800만 원을 조정 금액으로 결정했다.

피해배상 부담비율은 환경부 53%, 수자원공사 25%, 전라북도 11%, 무주군 11%다. 피해지반이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전부 해당되는 주민 39명, 11억8,0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 조정 종결 됐다.

황인홍 군수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이 제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의견 등을 제출했으나 받

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주민 개별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배상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군은 그나마 수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무주군 배상 부담금액(2억9,500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는 등 피해주민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최대 2,900톤의 용담댐 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인 부남면, 무주읍 일원의 농경지, 농작물, 건물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7월 손해사정조사를 추진한 결과 289가구, 83억 7,100만 원의 피해금액이 산정됐으며, 지난해 8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청 전경.

올해도 계속되는 군민안전보험

장수군, 전 군민 대상 11개 보장내용 담아 4년째 시행

장수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에도 전 군민에 대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은 2018년 9월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개 보장내용을 담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군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한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 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수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7건의 사례에 총 1억 1,500만 원이 지급됐다.

박문철 안전재난과장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전 군민 안전보험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4월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읍·면 산업계서 접수 9월부터 지급

무주군은 올해 9월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앞두고 신청자 접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북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와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다. 다만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농민은 수당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4월까지 읍·면 산업계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으며, 8월까지 요건을

검증한 후 대상자에게 오는 9월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 카드형(농민수당 공익형카드)으로 지급받게 된다.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

며 "대상자들이 누락이 없도록 선정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의 공동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4,851농가를 대상으로 60만 원씩 총 29억여 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진안홍삼 브랜딩·마케팅·판매 증진 협력

마케팅 솔루션 전문업체 시너지이십일과 업무협약

진안군과 사)진안군홍삼항산업을 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은 16일 진안홍삼 브랜드의 마케팅 및 판매증진을 위해 마케팅 솔루션 전문업체인 (주)시너지이십일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주)시너지이십일의 마케팅 능력과 판매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진안군에서는 '진안홍삼' 사

업에 대한 브랜딩·마케팅·제품판매 증진을 위해 상호간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계획이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로 홍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MOU체결을 통해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전적으로 홍보하고 제품 판매 솔루션을 개발, 활용하여 진안군 인삼

농가 및 홍삼 가공업체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시너지이십일은 마케팅 전반에 걸친 스토리와 컨셉의 개발, 표현 아이디어의 설계와 제작, 자체적인 데이터 솔루션 개발 및 활용으로 고도화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통합·복합적인 상품과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뇌출혈 환자 골든타임 확보 원할 기대

무주군-SK(주) C&C, AI기반 영상 판독 솔루션 활용 협약

무주군은 16일 SK(주) C&C(대표 박성하)와 공공의료서비스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SK(주) C&C 운동준 Healthcare그룹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뇌전산화단층촬영(이하 CT) 영상판독을 위한 인공지능(이하 AI) 솔루션 지원과 임상적 활용'에 동의했다.

AI기반 뇌출혈 영상 판독 솔루션은 CT영상을 수초 내로 분석, 출혈의 위치와 이상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응급환자 알림, 환자의 뇌출혈 가능성 0~100% 사이의 수치로 표시, 기존 의료영상전송시스템 연계)로, 서울대·아주대병원 뇌 영상전문 의가 약 10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에 참여했으며 그 정확도는 약 97% 이상에 이른다.

관련 서비스는 무주군보건의료원 CT 영상 판독에 활용될 예정으로 뇌혈관 질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원할 해져 장애 및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골든타임이 3시간으로 알려진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은 연간 10여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증질환이자 국내 단일 질환 중 사망률 1위"라며 "AI솔루션 지원은 영상의학전문가가 24시간 상주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진단정확도를 높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SK(주) C&C 측은 솔루션과 인프라 등에 대한 공급과 설치에 착수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AI 뇌출혈 영상 판독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유지보수 또한 연중 진행을 한다.

SK(주) C&C 운동준 Healthcare그룹장은 "의료AI 기술을 공공의료 분야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코자 한다"며 "무주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 준비 착착

진안군은 16일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준비위원회' 결산 회의를 갖고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중심의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결산회의에서 위원들은 그간의 위원회 운영과 공론화 활동을 결산하고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절차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군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도서관 건립을 위해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준성 군수는 "하반기에 국비 예산이 정해지면 민간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물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지적 재조사 대폭 확대 추진

진안군은 16일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경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2년 지적 재조사 대상으로 진안읍 오천리와 마구동 지구, 안천면 백화 1·2지구, 주천면 운봉지구, 마령면 덕천 2지구 등 총 6개 지구 3,316필지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별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추진한 4개 지구에 비해 2배 지구가 확대된 면적이다.

토지의 경계 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평균 지적 재조사 추진 면적인 1,000필지에서 올해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해 3,316필지를 재조사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인 국비 6억원을 이미 확보했다.

올해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을 받은 후 3월부터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조정과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